

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사전예고문

서울시에서는 중국관광객 전문음식점 및 패스트푸드(피자류 등)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오는 3.24(목) 실시할 예정입니다.

또한 점검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**민·관합동(자치구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)으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합니다.**

- ▷ 주요 점검내용은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, 식자재 보관상태, 무신고(무표시)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, 남은음식 재사용, 종사자 건강진단, 원산지표시 등 위생분야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,
- ▷ 또한, 종사자의 손, 조리용구 등에 대한 ATP(총오염도) 간이검사를 병행하여 올바른 손씻기 방법 및 소독요령을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입니다.

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**영업정지, 과태료 등 행정처분**이 내려지게 되며, 아울러 무표시 제품,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**현장에서 압류(폐기)조치**도 함께 이루어 집니다.

서울시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「**위생감시 사전예고제**」와 「**인터넷 자율점검제**」에 영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

다만, 문제업소,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